

2018 학년도 제 2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년 1월 15일(월) 10:30~12:30
-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종진 (위원장)
 염영섭 (학교법인 상임이사)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최효영 (대학원 총학생회장)
 박의빈 (학부 부총학생회장)
 김평강 (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 불참위원 : 김현정 (주간MBA 원우회장)
- 배 석 : 이도행 (법인사무처 계장)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김남진 (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1.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 내용 설명

- 배석한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이 2016 학년도 일반대학원 장학금 학교별 비교자료를 설명함.
- 배석한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이 2018 학년도 가예산(안)을 설명함.

2. 등록금 심의 관련 위원 발언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법정부담금 2억 증가된다고 했는데 2018 예산엔 6천만원만 증가한 것으로 나옴. 발전후원기금 감소 중 남덕우 경제관 외에 개인 기부금까지 정확히 반영된 것인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경상운영비 전입 까지 포함하면 전체 6천만원 증가할 예정임. 기부금은 발전홍보팀에서 차년도 수입 예상치를 제출한 것임.

김남진(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발전홍보팀에서 추세를 반영하여 예측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기부금 수입이 10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전년도 기부금 수입은 알 수 있지 않나. 실제 들어온 내역을 토대로 내년 기부금을 예측하는 것이 옳지 않을지. 현리 인성교

육원에서 추가로 나오는 수입은 없을지.

이종진(위원장)

현리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 사용할 수가 없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기부금 수입에 대한 카테고리를 대략 알 수 있을지. 작년 기부금 수입이 102억 정도라고 했는데 기부금 수입에 대한 카테고리를 알 수 있었으면 함. 올해 실제 수입을 토대로 차년도 예산이 합당한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년 전에 편성한 예산과 비교를 하니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없음.

이종진(위원장)

현재까지 대략 80억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고, 향후 추가로 입금될 것을 감안해야 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현재까지 그러하니, 내년에 의욕적으로 기부금을 유치하겠다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음.

이종진(위원장)

의욕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기에 기부금 증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봄.

원재환(학생문화처장)

일반기업은 12월이 결산시점인데 학교 회계연도는 2월까지임. 기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결산은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위원회를 2월에 해야하는거 아닌지. 작년도 심의위원회에서 총장 취임 첫해 기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신입 총장 홍보비 1억 이라든가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서 발언하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음. 현재까지 수치라도 제시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등록금은 학기 초에 마무리되어 예측하기 쉬운 면이 있으나, 기부금 같은 경우는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생기는 관계로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기부금 같은 경우는 평준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봄. 큰 변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임. 그런 실제적인 숫자를 보여줘야 학생위원들도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발전홍보팀에서 실질적인 숫자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측치를 제출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임.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가결산과 본예산이 있어야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여건상 어려운건 알겠지만 가결산과 본예산을 베이스로 심의를 하였으면 함. 등록금 감소부분을 입학금으로 설명했는데 학생당 15만원 정도로 보면 예측치의 마이너스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임.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입학금 뿐 아니라, 유학생 및 재학생 감소 예상이 반영됐다고 보면 됨.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외국인 등록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인지.

김남진(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아직 결정이 안나서 반영할 수 없고, 입학금만 반영하고 나머진 현재 기준임.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총장 공약 사항 중 1,000억을 모아 온다는게 있었는데, 예산상에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내년도 기부금 92억과는 동떨어진 수친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지.

이종진(위원장)

총장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펀드레이징에 대한 부분인데, 기부금, 기업, 산단, 국책사업 연구비 등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라 보면 됨. 기부금만으로 혼자 달성하기는 어려운 숫자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수지가 -4.5억이면 기금이 4.5억이 줄어 드는 걸로 보면 되나. 아쉬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처음 오는 학생 측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예산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수입이 80억 감소 예상되고 그에 따라 지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끝나면 얘기할게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편사항 같은 얘기만 나온다고 생각함.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자면 실제 가결산된 숫자와 비교하여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 점점 나빠지는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음. 색채와 비전이 보이지 않음. 학생이 줄어드니까 내년에도 긴축예산으로 살아보자는 그런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학생위원의 경험이 부족한 것을 배려해줬으면 함. 본예산이 나오더라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관리운영비 관련해서 3개년 자료를 찾아보니 관리운영비가 매년 조금씩 높게 잡히는 것으로 보임. 매년 예산보다 적게 쓰임. 매년 관리운영비에서 50억 정도씩 결산이 남는 것으로 돼있는데, 관리운영비가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실제 등록금 수입이 예산 보다 적게 들어오는 상황임. 실제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

도 예산보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면 됨.

이종진(위원장)

관리운영비를 대폭 줄이면서 각 단위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가급적 단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지금 자료가 너무 두리몽실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기타학생경비가 2억이 감소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았음. 어떤 부분에서 감소했는지 알 수 없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22일 전에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학생 여러분도 처음이고, 현재 저희도 처음으로 업무를 맡음. 내부적으로 예산 일정이 다소 딜레이 됐음. 지금 자료들은 등록금 수입, 책정 안에 포커스가 맞춰져있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걸 토대로 19일 정도까지 안이 나올 것 같음. 그 전까지 방문해서 디테일한 자료를 살펴보았으면 함. 올해는 다들 처음이고, 차년도에는 일정을 더 앞당겨서 진행하고자 하니 양해를 부탁함.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학부총학생회는 주말이나 야간 신경 쓰지 않고 언제라도 가능함. 등심위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예산을 보지 않고 심의했다는 것이 우려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이 자리에서 큰 틀을 보여드리는 차원이고 디테일한 자료들을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 방문 부탁드립니다.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엑셀로만 봐도 엄청나게 큰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보여드리긴 어렵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방문해서 보실 수 있음.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예전엔 메일로 자료를 공유 받았음. 편의성을 위해 메일로 받았던 기억이 있음.

김남진(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전년까지는 별도로 요청한 부분들을 보내드린 바 있고, 전체 모든 내용을 메일로 보내드리지는 않았음.

원재환(학생문화처장)

지금 이슈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임. 첫 번째는 등록금 책정안으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등록금 인상 인하 등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

외비 자료라면 나중에 회수하더라도 자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함. 두 번째는 디테일의 문제라고 보임. 학생들은 학생 대표로 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특히 민감함 학생 경비 같은 부분을 보다 디테일하게 보여 주는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염영섭(학교법인 상임이사)

지난 회의 때 사용된 가결산 자료라도 있었으면 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12월까지 실제 숫자와 이후 2개월치를 감안한 자료가 있으면 판단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함. 학교 예산이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 임의기금이 수입에서 보면 작년 65억에서 올해 35억이고 지출이 올해 98억에서 87억으로 감소했다고 봄. 임의기금으로 지출했다는 것과 수입의 차이가 50억 정도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건지 설명이 필요함.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단위 기금 등을 적립하는 것이 지출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기금이 학교 예산 바깥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 건축기금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그게 지출로 잡히는 것이 아닌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그런 경우 건축기금인출 수입이 잡히고, 건축비 등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임. 반대로 적립을 할 때는 반대로 기금적립 지출이 되는 것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50억이라는 차이가 생겼는데, 작년보다 50억을 더 적립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 소스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임. 예를 들어 기부금이 더 증가한 것인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임의기금에는 기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기금이 있는 것으로 봐야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그래서 실제 숫자가 필요하다는 것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마이너스 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

원재환(학생문화처장)

수입, 지출 수지를 놓고 보기 때문에 혼돈이 되는 것으로 보임. 우리가 관심이 있는 등록금회계로 보면 되고, 기금이라는 회계를 따로 놓고 봐야함.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세부적인 자료에 대한 것인데,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지금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음.

※ 학생 위원들의 일부 자료 열람 시간을 갖고, 기타학생경비 구성요소 엑셀 항목을 설명함.

이종진(위원장)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최효영(대학원 총학생회장)

대학원 등록금수입이 약 10억 정도 감소 예상 됐는데, 대학원은 교수님 재량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충원을 향상해달라는 지침이 하달되어 예년보다 많이 선발했다고 들었음. 우리학교 대학원이 장학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TA장학금으로, 본인이 일해서 번 돈이라 느껴지고 장학금으로 체감되지 않음. TA장학금 외 일반장학금은 미미한 편임. 대학원 관련 인터넷 카페를 보면 서강대학교 대학원에 지원이 거의 없어 다른 학교를 추천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음. 학교가 투자하는 부분은 안보이고 항상 감축하고 동결하는 모습만 보여줌. 기업들을 보면 손해를 감수하고 사회 환원을 하는 것처럼, 신입생 유치를 위한 투자 개념을 가졌으면 함.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가 학생에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함. 만약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논문심사비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봄.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하면 좋겠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대학원 등록금이 오른다면 인상분은 모두 대학원으로 돌아감. 논문심사비는 전액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학교에 들어오는 것은 없음. TA도 교수님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라 본부에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음.

원재환(학생문화처장)

논문심사비는 사실상 심사위원 거마비 정도로 쓰인다고 보면 됨.

최효영(대학원 총학생회장)

내년도 대학원 지원 예산 증액하는 부분도 학부행정실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고 체감하기도 어려움. 대학원 행정실에 예산 배정이 돼야 한다고 봄.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대학원 행정실에 배정할 경우 대학원 행정실의 업무 처리 문제도 있고, 각 학과별로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학생사이에서 홍보만 어느 정도 된다면 학부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원재환(학생문화처장)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첫째로 논문심사비는 서강대는 굉장히 건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됨. 본인도 경영학과 소속인데 타교의 경우 별도로 심사비를 추가로 주는 경우도 있

음. 앞으로 논의가 돼서 논문심사비를 없앤다고 한다면 논의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함. 우리학교 논문심사비는 말 그대로 심사위원의 거마비 정도로 상당히 건전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봐주시길 바람. TA장학금 얘기를 하자면, 장학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봄. 외국은 거의 박사들만 TA를 함.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중심 대학들이 박사 중심이 아니기에 석사생들이 많이 하고 있음. 실제 외국 TA들은 수업지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그렇지 않음. 이 부분은 학생들을 어느 정도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봄.

최효영(대학원 총학생회장)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그 안에서 논문심사비가 지출되었으면 좋겠다고 봄. 실제로 학교가 내는 곳이 있음. 대학원 학생들 입장에선 목돈이 나가는 것이라 부담이 큼.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모든 학생이 논문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논문심사는 수익자 부담의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타 대학의 등록금 수준과도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종진(위원장)

논문심사비는 별도로 고민을 해야 할 이슈로 보임.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산단 회계는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2016학년도 산단전입금이 120억인데 예산이 70억임. 산단 전입금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김남진(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함. 산학협력단에서 학교로 전입하는 돈은 임의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원, 직원 중 산학협력단에 종사하는 인건비라든지, TE관 같이 산학협력단에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 비용 같은 것 등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임. 2016학년도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 마감된 이후 2월말에 추가로 학교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전출하였기에 수입예산을 초과했고 다른 해에는 발생하지 않았음.

이종진(위원장)

학부 측 등록금 책정 안에 대해 말씀하셨으면 함.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등록금 동결안에 동의할 수 없음. 등록금을 1% 인하하고 그에 따른 수입 감소분 10억 정도를 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함. 대학교육연구소에 30만원을 내고 자문 받은 결과 나온 얘기가 서강대학교에서는 법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였음. 현재 등록금이 타대학 대비 높아 학생들이 연 1천만원 부담하며 학교에 기여하고 있음. 법인에서 부담을 상당히 적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듦. 교육비 환원율이 높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체감하긴 어려움.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법인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하고, 법인보다 학생이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함. 그 편차를 맞추기 위해 등록금을 1% 인하하고 차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이사회 문제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법정부담금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함.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법인이 힘든 상황인건 알고 있고, 교육부에서 판단하여 부담액 기준이 나온 것은 알고 있음.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그렇다면 학생은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임. 본인도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해야 할 상황임. 수치상으로 봤을 때 다른 학교 보다 법정부담금 비율이 낮은게 사실임. 다른 학교는 부담률이 40%대인 것으로 알고 있음. 법인도 힘든 상황이지만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함. 학생들은 이미 연 1천만원 이라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함. 법인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종진(위원장)

법인이 전혀 노력을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봄. 법인에서도 쥐어짜서 전입금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 동문회 측에서는 벌써 예견했던 일임. 법인에서는 최소한의 의무를 의무라고 생각함. 어찌 보면 법인이 소스가 있다면 부담할 수 있을 테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 이걸 제3자 측인 동문회나 사회의 기업이든 부담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동문회는 지금 협조적이지 않음. 학교재단이 맡아야할 숙제라고 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모금을 열심히 하든가,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고 봄.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봄.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일부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봄. 외국은 국가가 대학 지원을 많이 해줌. 우리나라 정부는 지원도 열악하고 등록금만 동결시키고 있음. 경제도 어렵고 모두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조금씩 고통 분담을 하는 차원으로 생각했으면 함. 어느 한 주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함. 학생도 고통을 받고 있고 학교 측도 고통을 받는 등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서로 양보를 하면서 법인에서 최대한 협조를 했으면 함.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외부자문을 받았을 때, 대학구조조정평가 부문에서 재정적 평가를 할 때 추후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얘기가 되고 있음. 외부자문에서는 소액증가로 그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옴. 이번에 법정부담금 6천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걸로 정성평가지표를 만족시킬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지 궁금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시뮬레이션 결과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 부분을 얘기하고자 함. 추후 법인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정성평가 부분은 확인해 보겠음.

이종진(위원장)

법인이 강하게 구조개편도 하고, 줄라대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학교의 한 축으로서 법인에만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듦.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음. 법인사무처에 방문하여 얘기를 들었을 때 법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학생 여론에 있어 지금까지 이사회 사태 이후로 법인에 대한 요청이 많았음. 학생 대표로서 학생 입장에서 말씀드린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내부에서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 등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음.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물론 국가도 책임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국가에서 지원을 덜 해주는 것도 맞음. 총동문회에서 지원도 줄고 있고 학교도 부담이 있는 상황임. 다만 그 부담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라는건 적어도 그 이상을 주라는 것이지 최저임금만 주라는 것은 아님. 법인에서도 6억을 낼 수 있다는 건 적어도 6억을 내라는 뜻이지 6억만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님. 대학생이 평균적으로 3천만원의 빚을 지고 가는데 이게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빚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위해 학교 측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강 공동체로서 서로 소통하고 나아가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원재환(학생문화처장)

학생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좋겠음. 현재 학생 등록금은 수년째 동결이고 연평균 물가상승률 약 1.5%임. 실질적으로는 등록금이 인하가 되고 있다고 봄. 명목상 동결이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음. 학교 교수나 직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급여가 동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실질적으론 손실이 생긴다고 생각해줬으면 함. 우리 교직원들도 국가 정책이기에 감수하는 것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으로 봤으면 함. 한마디 덧붙이자면, 법인에 요청하는 것 등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음.

이종진(위원장)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재정비하여 상승세를 바라보고 있고, 법인 직원들도 강도 높은 구조개혁도 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음. 격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서강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다시 통합하는 것도 법인의 큰 과제임. 구성원간의 반목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음. 기획처 입장에서는 총장 펀드레이징과 별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장임. 각 단위체들이 서로가 노력하고 격려해주는 분위기로 의지를 돌아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함. 동문회 집행부와도 관계를 개선했으면 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거버넌스만 바꿔주면 얼마든 동문회는 지원할 의사가 있음.

이종진(위원장)

이사회 개선 등 계획된 것을 조금 더 지켜봐주셨으면 함.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더 참고하고 더 좋은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내부에서도 얘기하도록 하겠음.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음.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학생회도 마찬가지로 학교와 법인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함. 분명 이상과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갭을 메꾸는 것에는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서도 정보나 계획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했으면 좋겠음.

이종진(위원장)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 앞으로 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음.

원재환(학생문화처장)

마지막으로 국가 지원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대학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학교 예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진 않지만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 국가의 모든 정책적인 지원이 장학금에 집중되어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함.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각 학부의 등록금 쓰임에 대해 본 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지.

김남진(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세부적인 것 까지 회의에서 다루기엔 어렵고, 이 역시 방문하여 궁금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충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3. 차기 회의 일정

- 차기 회의는 2018년 1월 19일 (금) 오후 3:00 에 진행하기로 함.

2018. 1. 22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이종진 기획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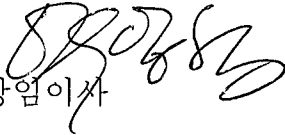


(교직원 위원)

(학생위원)

(외부전문가)

염영섭
법인 상임이사



최효영
대학원총학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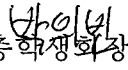
김창배
파투아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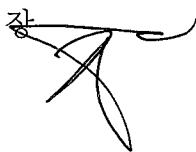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박의빈
학부 부총학생회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김평강
총학생회 연대국장

